

한국 여성연쇄살인사건의 여성학적 재조명 - 유영철, 강호순 연쇄살인사건 사례분석

박선영*

〈국문초록〉

86년 화성연쇄살인사건과 94년 지존파사건, 94년 은보형사건, 2004 유영철의 부녀자 연쇄살인 등 여성, 어린이, 노약자등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한 연쇄살인이 계속되고 있다. 2009년 또다시 한국사회는 강호순의 부녀자 연쇄살인으로 여성연쇄살인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필요함을 인식하게 되었다. 여성연쇄살인범의 경우에는 사회적 약자가 부자에 대한 보복, 여성에 대한 증오심을 해소, 성적인 쾌락을 위해 살인을 저지른 경우이다. 경제적 이유보다는 사회의 약자로서 자신의 소외감에 대한 보상심리를 여성, 노약자를 대상으로 해소했다고 볼 수 있다. 이렇듯 여성연쇄살인 범죄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범죄분석과 범죄대책, 수감대책으로는 계속되는 여성연쇄살인을 막을 수 없고 여성범죄피해자의 인권보호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연쇄살인범죄의 범행동기, 수법 등을 통해 알 수 있다. 유영철, 강호순과 같이 사창가 주변에서 거주하며 어린시절을 보내야 하는 청소년들에 대한 대책, 성매매업소 여성들의 일자리마련과 같은 근본적인 사회적 약자 보호대책은 범죄예방차원에서도 지속적이고 현실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연쇄살인범에 대한 논의는 경찰, 검찰만이 아니라 여성계, 학계, 사회적, 정부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주제어: 여성연쇄살인, 강호순부녀자연쇄살인, 유영철연쇄살인, 여성학적범죄분석

* 목원대 경찰법학과 교수

『젠더와 문화』 제2권 1호(2009): pp.7-37
© 2009 계명대학교 여성학연구소

1. 서론

86년 화성일대에서 15년 동안 10대-60대 여성을 성폭행 후 매장한 화성연쇄살인사건과 94년 9월 사업가 부부 등 5명을 부유층에 대한 반감으로 살해한 지존과사건, 94년 9월 택시를 이용해 부녀자 6명을 납치해 2명을 살해한 온보현사건, 2004 유영철의 부녀자 연쇄살인 등 여성, 어린이, 노약자를 상대로 한 연쇄살인 계속되고 있다. 2009년 또다시 한국사회는 강호순의 부녀자 연쇄살인으로 그 실체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필요함을 인식하게 되었다. 화성연쇄살인 등 계속되는 여성관련 강력범죄, 특히 최근에 세간의 이목을 주목한 부녀자 연쇄살인의 범행 동기, 범행진행사항, 사회적 대책에는 분명 여성을 범행의 대상으로 선정한 근본적인 이유와 동기가 있음을 알 수 있고 그 수사방법과 사회적 대책이 일반적인 연쇄살인과는 다른 각도로 연구되어야 한다. 하지만 여성범죄전문가, 여성프로파일러, 여성피해자학에 대한 연구가 미미한 실정이고 여성학계에서도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과는 다른 심도 있는 분석과 체계적 연구가 필요하다는 취지에 공감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여성연쇄살인에 대한 사회적 의미와 여성학적 입장에서의 대책을 최근 발생한 유영철, 강호순의 연쇄살인 분석을 통해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으로는 여성범죄에 대한 국내외 학계의 다양한 이론적 논의와 경찰청의 연쇄살인범죄에 대한 범죄분석, 언론보도내용, 사건을 담당하였던 우리나라 최초의 프로파일러라 할 수 있는 박일룡 수사관과의 인터뷰내용을 기초로 실무적 분석내용과 이론을 연결시키고 여성학에 근거한 정책제언을 시도하였다. 기존의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과 달리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유영철, 강호순 연쇄살인사건은 여성의 사

회경제적 위치를 범행의 이용한 것이라 할 것이다. 노약자와 같이 여성은 우리사회의 사회적 약자임을 이러한 여성연쇄살인은 보여주고 있다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여성강력범죄에 근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여성에 대한 사회적 보호장치와 여성정책, 여성관련 강력범죄에 관한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남성위주의 범죄분석과 범죄대책, 수감대책으로는 계속되는 여성연쇄살인을 막을 수 없고 여성범죄피해자의 인권보호를 제대로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강호순 연쇄살인범죄 등을 통해 어느 정도는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힘의 불균형으로 인한 사회적 법적 제도적 차별이 계속된다면 우리사회에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의 수와 강도는 계속 높아져 갈 것이다. 여성범죄학자, 여성법집행기구종사자, 여성학자, 여성정치가들의 협력적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사회의 소외계층으로 언제든지 성범죄, 연쇄살인, 성매매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여성의 인권보호와 권익신장의 구체적 방안들이 지속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 여성이 사회에서 자신의 역할을 다하고 능력을 신장시켜 남성들의 쾌락의 대상으로 밖에 여겨질 수 없는 현실을 개선해 나아가야 강호순 부녀자 연쇄살인사건과 같은 범죄가 계속되어지는 것을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광범위 여성범죄의 정의 대신 최근 이슈화된 여성연쇄살인 범죄분석을 여성학적 혹은 젠더적 입장에서 재정의하고 그에 대한 대책마련을 목표로 하고 있다. 따라서 경찰청등에서 발표한 연쇄살인에 대한 분석 외에도 여성범죄학적 접근과 여성학적 접근을 시도한데 그 의의가 있다.

2. 이론적 논의

1) 연쇄살인범의 정의

연쇄살인범은 단기간에 다수의 희생자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연속적으로 단기간에 범행을 저지르고 검거망을 피하기 위해서 잠복기를 가지는 것이 특징이다(G. Marcus, 1986). Holmes(1994)에 의하면 3명 이상의 피해자를 발생시키는 살인범죄자를 연쇄살인범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형사사법기관이나 범죄학자들은 3명설을 따르고 있다. 연쇄살인의 경우에는 사건의 개요, 범행발생과정, 동질성에서 다른 사건들과의 차이가 있고 이를 통해 프로파일링이 가능하다. 연쇄살인의 경우에는 다양한 매스미디어의 발달로 모방범죄의 발생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최영인, 2005: 126). 연쇄살인의 수사를 위해서는 사건의 관련성을 파악하는 프로파일링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최근 경찰청의 의견이다. 특히 그 대상이 다수의 여성인 경우에는 범행 방법의 특징을 여성연쇄살인범으로 지정하고 그에 대한 범행수법분석과 대상자 관리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한국에는 여성연쇄살인범죄에 여성수사전문가가 활용되지 않고 있고 여성 범죄 프로파일러가 없다는 것이 여성연쇄살인 사건수사를 어렵게 하고 근본적인 예방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하나의 이유가 될 것이다.

연쇄살인범의 경우에는 백인, 남성, 경찰이거나 경찰업무와 관련이 있는 직업, 높은 지능, 준수한 외모, 25세에서 34세사이의 연령을 특징으로 한다(D. Blair, 1993: 1-12). 즉 사회에서 지적, 외적, 권력적인 면에서 비교우위를 점하고 있는 남성이 대다수이고 자신의 우월성을 사회적 약자를 살해함으로써 확인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연쇄살인의

경우에는 그 대상이 노약자, 여성, 유아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특이한 것은 여성 연쇄살인범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는데 이는 많은 성범죄의 대상이 여성인 점과 유사하다. 즉 성적인 유희를 위해 여성을 살해하고 강간하는 남성의 심리상태가 그대로 드러난 것이다. 두 번째로 경찰의 업무와 관련이 깊은 민간경비업체의 직원, 경호업무에 종사자, 경찰, 군인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모범범죄이거나 범죄에 관한 많은 정보를 가지고 타인을 공격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연쇄살인을 한다는 것이다(R. M. Holmes, 1998; 최영인, 2005). 연쇄살인범의 경우 상당수가 IQ 140이상의 천재인 경우가 상당수이고, 적어도 평균적인 지능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들의 경우 학교교육을 받지 못하고 직장을 가지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다.¹⁾ 여성들이 많이 따르는 외모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언변이 뛰어나다는 것이다. 강호순의 경우에도 여성들이 처음 만났음에도 차에 동석하는 것은 이러한 준수한 외모와 고급승용차, 의복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유영철의 경우에는 자신이 IQ 142(동아일보, 2004)라고 진술하였으며, 어느 범행현장에서도 지문을 남기지 않았다. 범행방법에서는 급소를 둔기로 때려 피해자들을 단번에 숨지게 했고 DNA 검사를 우려해 범행 시에는 성관계도 갖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는 지능범의 범행수법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2) 연쇄살인범의 발생과정

연쇄살인범의 경우에는 왜곡된 사고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여성에 증오심과 적개심, 성매매 여성에 대한 멸시 등 여성에 대한 왜곡된 사고를 가지게 되고, 이러한 사고가 살인이라는 행위로 표출되게 된다.

1) <http://www.criminalprofiling.ch>

살인 후에는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도 하지만 왜곡된 사고가 자극을 받게 되면 동일한 행위를 하게 된다는 것이다. 연쇄살인범의 경우에는 외부의 자극에 대하여 강한 반발심과 보복, 공격을 행해야 한다는 생각을 그대로 행동으로 옮기게 된다(V. Quinsey, T. Chaplin, 1990: 203-209). 또한 다시 그 행동을 후회하지만 반복한다는 것이다. 연쇄살인범은 외부적으로 전달되는 자극이나 충동에 대해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고 이러한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 사람을 살해하거나 고통을 가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미모의 여성을 보면 연쇄강간이나 살인을 저지르는 것은 외부의 자극에 대한 부정적 반응에서 기인한 것이고 이러한 부정적 반응을 억제하지 못하고 즉시적 행동으로 옮겨 고통을 면하거나 쾌락을 즐긴다는 것이다(A. Rider, 1980: 7-17).

연쇄살인범의 발생에는 그 성장배경에서 이혼, 아동학대, 성적열등감 등으로 여성에 대한 증오가 바탕이 되어 왜곡된 형태로 이를 해소한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학계의 결론이다. 어머니가 가정을 책임지는 결손가정이고, 심리적으로는 신체적 학대를 받아 모욕감과 자신에 대한 자존감을 상실하게 된다. 가정적으로 정신병, 범죄경력, 알콜중독과 같은 내력이 있고 아버지는 가정에 관심이 없고 권위적인 태도로 범죄자들의 경우 이러한 태도에 반항감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어린시절에는 시설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으며, 극단적 사회적 괴리, 사회에 대한 증오로 십대부터 자살충동을 느꼈다는 것이다. FBI의 연구에 의하면 살인범의 42%는 신체적인 학대를, 74%는 심리적 학대를 받았다는 것이다. 그들 중 35%는 어린시절 성폭행 현장을 목격하고 43%는 그들 자신이 성폭행을 당했다는 것이다. 2006년 연쇄살인범 정남규는 어린시절 성폭행과 학교폭력을 당한바 있다고 진술하였으며 유명철도 어린시절 불우한 생활을 했으며 동물을 거리낌 없이 죽였다는 것이다. 지존파, 은보현, 정두영, 김경훈 등 연쇄살인범 대부분이 알콜중독자인

아버지나 어머니가 가출한 환경에서 성장하였으며 이로 인해 정신장애를 경험하였다는 것이다(임준태, 2009: 354-368).

즉 연쇄살인범은 한 사회의 병리현상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고 특히 한국사회에서의 여성의 상품화와 비인간화, 아동학대, 남성우위의 사회문화가 만들어낸 시대적 범죄라 할 것이다. 유영철, 강호순 사건의 경우에도 이들이 성매매 업소 근처에서 생활하거나, 이혼 등의 경험으로 여성에 대한 왜곡된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병리현상과 한국사회에서 여성에 대한 상품화와 비인간화는 경찰을 비롯한 법집행기구의 수사력 강화나 법제도의 정비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연쇄살인범의 발생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회의 소외계층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배려가 이러한 범죄의 예방과 근본적인 치유책임을 알 수 있다.

3) 연쇄살인범의 유형

(1) 쾌락적 연쇄살인

쾌락적 연쇄살인은 방화범의 방화나 포르노비디오를 통한 성적유희처럼 살인을 통해 성적쾌락을 즐기는 것으로 대상자를 죽이는 과정 자체를 즐긴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시간을 두고 피해자가 죽는 과정을 녹화하기도 한다. 피해자에 대한 지배행위, 신체토막행위, 고문행위, 식인행위, 사지절단행위, 사체 식육 등의 행위가 이어진다는 것이다. 피해자의 고통을 통해 그를 지배한다는 만족감을 느낀다는 것이다(최영인, 2005에서 재인용). 쾌락적 연쇄살인범의 경우에는 엽기적인 가학행위를 통해 성적흥분을 느끼고 피해자가 애원하거나 목숨을 구걸하고 심한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 성적흥분을 더욱 더 강하게 느낀다고 한다. 가학적 쾌락을 통해 피해자를 지배하고 굴복시키며 힘의

우위를 확인하다는 것이다. 연쇄살인범의 경우에는 어린시절의 극단적인 심리적 학대를 받았으며, 성인이 된 이후에는 타인을 자신과 동일한 상황을 경험하게 하려는 의지를 가지게 된다(임준태, 2009: 294).

FBI에서는 연쇄살인범의 대부분이 성적 범죄와 연관이 되어 있으며, 56%는 피해자가 사망하기 전에, 42%는 피해자가 사망한 후에 강간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연쇄살인범의 경우 이러한 성적쾌락을 즐기기 위해 살인을 저지른다는 통계를 통해서 그 피해의 대상이 대다수가 여성임을 짐작할 수 있다. 일부이기는 하지만 남성이 여성을 상품화하여 성적인 쾌락의 도구로 활용하는 단계를 넘어서 살인이라는 극단적 방법으로 그 성적 쾌락을 즐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성의 사회경제적 위치의 열세 뿐만 아니라 육체적 연약함을 이용한 폭력의 대표적 범죄라 할 것이다.

유영철의 경우에는 경찰조사에 따르면 ‘키가 작고 얼굴이 예쁜’ 여성만을 골라 범행을 저지른 것은 이러한 쾌락적 살인의 예라 할 것이다. 특히 헤어진 전부인과 동거녀가 이런 스타일이어서 이에 대한 증오심이 살인으로 이어진 것으로 경찰관계자는 분석하고 있다(한국일보, 2004). 그러나 그 이면에는 유영철의 여성에 대한 선호가 반영되어 성적인 쾌락을 위해 대상을 물색했다고 할 수 있다.

강호순의 여성연쇄살인은 유영철의 연쇄살인과 달리 전형적인 쾌락형 연쇄살인이라 할 수 있다. 여성들을 자신의 에쿠스 승용차에 태우고 성폭행한 뒤 목 줄라 살해하는 방법으로 8명의 여성을 3년에 걸쳐 살해하였다. 이는 경찰에서 증거를 확보한 사건의 경우만을 포함한 것이고 이외에 또 다른 여죄도 있을 수 있다. 20대에서 50대 초반의 여성들을 아무런 이유 없이 성폭행하고 살해했다고 강호순은 수사과정에서 범행동기를 밝혔다. 여성들을 성적유희 대상으로 이용하고 살인까지 별다른 죄의식 없이 저질렀다는데 그 범죄의 심각성이 있다 할 것이다.

검거되지 않았다면 언제까지라도 자신의 쾌락을 위해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살인, 강간 등 여성관련 범죄자의 범죄프로파일링과 수사기법마련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2) 우월성 과시형 연쇄살인

우월성 과시형 연쇄살인의 경우에는 살인의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하면서 자기만족과 성적인 쾌락을 얻는 경우이다. 쾌락형 연쇄살인이 성적쾌락을 느끼기 위한 것이라면 우월성 과시형 연쇄살인의 경우는 약한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우월성을 과시하면서 쾌감을 얻는 것이다(Michaud & Aynesworth, 1983). 힘을 과시하기 위해 다양한 가학적 방법을 활용한다. 피해자가 살려달라거나 도와달라고 애원하면 그대로 살해하고 피해자가 반항하면 살해의욕을 상실하는 경향이 강하다. 우월성 과시형의 경우에는 기존의 사회가치와 질서를 무너뜨리기 위해 살인이라는 극단적 방법을 통해 정복과 지배욕을 충족시킨다. 이들은 칼, 송곳, 톱, 도끼, 드라이버, 못, 전기선 등 일상적인 도구들을 살인도구로 사용한다(염건령, 2005: 145-146).

유영철의 경우에는 출장마사지나 비슷한 직업을 가진 여성만을 골라 살인행각을 벌였는데 이는 교도소에 있는 동안 출장마사지사인 아내가 일방적인 이혼을 요구하여 이혼을 당하였으며, 또한 같은 직업을 가진 여성에게 청혼하였으나 거절당한 후 출장마사지사를 상대로 살해했다는 것이다. 2004년 3월 중순경에는 전화방 도우미 권모씨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하여 살해한 뒤 7월 13일까지 10여명의 출장마사지사를 살해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존과, 유영철의 사례는 이러한 우월성 과시형 연쇄살인으로, 소외된 삶을 살던 사람이 기존의 가치질서에 대항하여 부자들을 범행의 대상으로 선정하여 잔인한 방법으로 연쇄살인을 한 것

이다. 특히 이러한 경우 여성이 그 대상으로 선정되는 예도 많은 데 성적 열등감을 여성을 살해함으로써 우월감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시도로 보인다. 즉 여성으로부터 이혼당하거나 여성에게 거절당한 경험이 있는 이들은 살인이라는 극단적 방법을 통해 여성들을 지배하려는 경향이 나타나는 것이다.

(3) 이윤추구형 연쇄살인

이윤추구형 연쇄살인은 돈과 물질적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연쇄살인의 유형으로 보험금수령, 유언을 통한 재산분배를 목적으로 한다. 폭스와 레빈의 연구에 따르면 이들은 오디오, 비디오, 사진, 의복류 등 피해자와 관련된 물품을 수집하는 경향이 있고 이러한 물건들은 피해자와 연관된 통제, 지배, 성적 환타지를 충족시켜준다(Fox & Levin: 1998). 강호순의 경우 보험금을 목적으로 자신의 장모와 아내를 살해한 것이 이러한 이윤추구형 연쇄살인의 예라 할 것이다. 특히 이러한 이윤추구형 연쇄살인은 경제가 어려운 요즘 발생하기 쉬운 범행 유형이고 살인의 대상으로 여성이 쉽게 선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퇴근길 혼자서 퇴근하는 여성의 경우 타인의 도움을 요청할 수 없고 자신이 스스로를 방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윤추구형 살인의 대상이 되기 쉽다는 것이다. 특히 독신여성의 증가와 원룸형 주거형태가 늘어나면서 이러한 이윤추구형 연쇄살인의 대상이 쉽게 될 수 있다. 이윤추구형 연쇄살인의 경우에는 지역이 한정되지 않고 범행수법도 지능적이어서 범행발견이 어렵다는 것이다. 최근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화된 강호순의 여성연쇄살인은 이러한 이윤추구형 연쇄살인의 대표적인 예가 될 것이다. 강호순은 99년 트럭화재사건으로 2800만원, 2000년 식당화재로 3800만원, 티코차량전복으로 7381만원, 2005년 4000만원을 수령한 뒤 보험사기의 수법으로 2007년 네 번째 아내와 장모를 화재를 위장한 방

화살인을 통해 4억8000만원을 받아내고 경제적 여유가 생기자 범행을 일시적으로 중단했다. 검찰에서는 강호순이 경험적 보험사기와 생명경시 성향이 수많은 여성을 만나며 커진 성적욕망과 폭력성향에 더해져 무차별적 살해행위에 빠져든 것으로 보고 있다.

(4) 사명형 연쇄살인

사명형 연쇄살인은 사회악으로 판단되는 사람들을 스스로 결정하고 살해함으로써 사회정의의 실현이나 절대선을 위해 공헌했다고 느끼는 유형이다. 주로 사창가 포주, 성매매여성, 유대인, 흑인, 가출소년, 폭주족을 그 대상으로 선정한다. 유명철, 지존파에 의한 연쇄살인의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유명철의 경우에는 자신의 불우하고 빈곤한 처지가 부자들 때문이라는 부정적 생각을 가지고 부자들만을 공격했다는 것이다. 노동을 하는 부모 밑에서 태어나 14세 때 아버지가 숨진 이후 14차례에 걸쳐 11년 동안 교도소 등에서 생활하고 간질병으로 치료를 받기도 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불우한 어린시절에 대한 보상심리가 살인을 유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강호순 이전의 연쇄살인범들은 이러한 사회적 불만이나 소외에 대한 보복심리와 성매매여성이나 부자에 대한 증오를 살인이라는 행위로 표출하였다. 사명형 연쇄살인의 경우에는 범인검거 이후에 사회적인 위기의식과 정화의 메시지를 일부에 시사하는 예가 많다. 즉 소외계층에 대한 방치와 차별이 결국은 사회구성원 대다수에게 치명적인 범죄와 위협으로 되돌아 올수 있다는 점에서 사명형 연쇄살인은 연쇄살인 그 이상의 의미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 연쇄살인의 대상이 부자나 사회적 강자가 아니라 여성이나 노약자가 대부분이라는 점에서는 연쇄살인범의 주장과 달리 또 다른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범죄란 점이 사명형 연쇄살인의 비극이라 할 것이다.

3. 한국의 여성연쇄살인 사례연구

1) 유영철 연쇄살인사건 분석

(1) 성장배경

유영철은 전남 고창에서 출생하여 3남 1녀 중 3남으로 출생하였다. 아버지가 월남전 참전 후 돌아와 음주와 노름으로 재산을 탕진하고 가정불화가 심하였으며 술을 마시고 가족들을 폭행하고 폭력을 행사하곤 하여 유영철은 아버지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유영철이 7세 되던 해에 부모는 이혼하고 아버지와 잠시 살다 이후 어머니와 생활하였다고 한다. 초등학교시절에는 장난이 심하고 말썽을 자주 부리는 학생이었다.

유영철은 91년에 혼인 후 아들이 있었으나 2002년 이혼하였다. 93년부터 95년까지 간질병에 의한 정신질환으로 입원하였으며 03년 강간으로 전주교도소에 수감된 중에 전처가 이혼을 요구하여 이혼하게 된다. 3년 후 교도소를 출감한 이후 대인기피증을 경험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영철은 91년 특수절도이후 전과 14범의 범죄경력을 가지게 된다. 수감 중 강제 이혼을 당한 이후 불특정 다수에게 분노를 느끼게 되었으며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범행수법, 범지식을 습득하여 범행을 위한 치밀한 준비를 시도했다고 한다. 범행대상은 주로 부유층과 전처와 동일한 직업과 신체적 특징을 가진 여성을 대상으로 했다. 유영철은 경찰 신분증을 스스로 제작하여 범행에 이용한 점이 특이한데 이는 유영철이 경찰이라는 직업을 동경한 데서 비롯된 행위임이 경찰 수사과정에 서 진술되었다. 유영철은 부모의 이혼과 애정결핍, 간질병으로 인한 정신장애를 경험하고 교도소 수감 중 강제로 이혼을 당하면서 대인기피

증을 겪게 된다. 여성에 대한 불신과 증오, 소외감이 유영철의 성장배경에서 나타나고 있다.

(2) 유영철의 정신병질 결과 (PCL-R²⁾ 결과)

유영철은 보통이상의 지적능력을 소유하고 있으며, 어린시절부터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인기피 증세가 있으며 가학적 환상을 발달시켜온 것으로 검사결과를 보였다. 반사회성, 정신병질적, 자기애적 성향이 강한 성격의 소유자였다. 편집증과 반사회성이 높게 나타났고 자기중심적이고 도취적이어서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고 외부의 환경을 탓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났다. 대인관계에서는 타인을 자신의 쾌락을 위한 대상으로 여기고 일상의 무료함을 달래기 위한 자극을 추구하는 삶의 방식을 보였다. 근본적으로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으며 열등감이 심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가족이외의 관계에 대한 기피현상이 있던 것으로 검사결과 나타났다(경찰청, 2004).

대부분의 연쇄살인범의 특징이 유영철의 경우에도 그대로 확인되었다. 보통이상의 지능과 반사회성, 정신병질, 대인기피적 성향이 인간에 대한 증오와 소외감을 만들어 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자신이 쉽게 범행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여성, 노약자를 선정하여 살해하는 방식이었다. 금전적 이득 대신 생명을 그 쾌락과 분노를 표출하는 대상으로 삼았다는 것이 다른 범죄자와 차이점이고 사회적 각성을 일으키게 하는 점이다.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또 다른 사회적 약자가 범행을 저지른 우리사회의 병리적 현상을 유영철의 심리검사 결과에서 그대로 확인할 수 있다.

2) PCL-R은 크게 대인관계, 생활방식, 반사회적특성, 정서적문제등 4가지로 평가하여 정신병질자로 분류하는 도구로 범죄자의 특성 및 재범예측률이 높은 도구로 알려져 있다.

(3) 사건개요

유영철은 2003년 9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 단독주택에 침입해 아무런 이유 없이 모 대학 명예교수 이모씨(78세)와 부인 이모씨(68세)를 칼로 목을 찌르고 둔기로 여러 차례 때려 두개골 파열로 숨지게 한다. 경찰의 수사결과(경찰청, 2004)에 의하면 금품몰색의 흔적도 없고 집안에 있는 다액의 금품도 그대로 남겨두었다고 한다. 유영철의 진술에 의하면 교회 옆에 거주하는 부유층을 상대로 노인들만 거주하고 침입이 용이한 곳을 선정했다고 한다. 살해이후에는 강도로 위장하고 압구정 역에서 전철로 귀가하는 치밀함도 있어서 정신질환에 의한 범행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었다. 부유층을 상대로 사회에 대한 불만과 증오를 해소하는데 노인들을 그 범행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사회적 문제임을 지적할 수 있다.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지고 실직자, 파산자가 늘어가는 현재 상황에서 제2의 유영철이 계속 될 수 있음을 추측케한다.

2003년 10월 9일에는 종로구 구기동 고모씨(61세 주차관리원)의 집에 침입해 어머니 강모씨(여, 85세)를 망치로 살해하고 부인 이모씨(60세), 아들(35세)을 칼로 머리를 때려 살해했다. 이 사건에서도 유영철은 교회 옆에 거주하는 부유층을 상대로 범행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살인 이후에는 2층의 금고로 가서 강도로 위장하고 발자국을 제거한 후 밖으로 나와 택시와 전철을 이용해서 도주했다고 한다. 2차 범행에서는 살해 인원도 늘어났고 범행이후 증거인멸의 수법도 발전한 점에서 연쇄살인이 우발적 충동적 범행으로 종결되지 않을 것을 알 수 있다. 2003년 10월 16일에는 선릉역 주변 교회근처의 정원이 큰 유모씨(여, 69세)의 집에 침입해 별다른 이유 없이 해머망치로 머리를 3-4회 정도 내려쳐 유모씨를 살해한다. 역시 안방을 강도가 침입한 것으로 위장하고 죽흔적을 제거한 뒤 증거를 인멸했다고 한다. 이후 전철을 이용하

여 도주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후 2003년 11월경 동대문구 혜화동의 김모씨(86세)의 집에 침입하여 해머망치로 머리를 내리쳐 살해하고 파출부인 피해자 배모씨도 살해 후 방화했다. 유영철은 4회에 걸쳐 노인을 상대로 자신의 힘의 우월성을 과시하고 부자에 대한 반감과 증오를 표출했다. 교회근처와 파출소 근처에서 범행대상을 물색한 짐 역시 기독교와 경찰에 대한 자신의 우위를 확인시키고 싶었다는 것이다(경찰청, 2004).

2004년 2월경에는 동대문구 이문동 밀리오네 점원인 전모씨(여, 25세)가 야간근무를 하기위해 출근하는 것을 위조한 경찰신분증을 가지고 끌고 가려 하였으나 저항하자 흉부 등을 찔러 살해하였다. 힘없는 노인들을 살해하는데 이어 여성들을 상대로 살인을 시작하였다. 2004년 3월부터 7월까지 전화방 등에서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는 여성 11명을 자신의 오피스텔로 불러 머리를 내리쳐 살해하여 토막내 배낭과 비닐 봉지 등에 나누어 담아 봉원사 주변 야산 등에 암매장하였다. 살해한 여성들의 지문을 모두 절단하여 신원을 파악하지 못하게 하는 잔인함과 치밀함을 보여주었다. 이전의 노인살해와는 달리 여성들을 살해할 때는 쾌락형 연쇄살인범의 행태를 나타냈다. 사체를 토막 내고 지문을 절단하고 성기를 잘라내는 행위를 통해 여성들에 대한 성적쾌락과 힘의 우월성을 과시한 것으로 보인다. 여성들이 야간에 출근하고 노래방 도우미로 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유영철은 자신의 성적 쾌락을 해소하는 범행의 대상으로 이용한 것을 알 수 있다.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늘어나고 생계를 부담해야 하는 현재의 상황에서 유영철의 범행은 살인범의 체포에서 종결되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대책이 절실하다 할 것이다. 성폭행, 강간, 살인, 강도 등의 범행대상으로 이러한 여성들이 대상이 될 것은 쉽게 예측할 수 있다.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여성들과 이러한 범행이 발생할 경우 극단적인

형태의 범행이 계속되어 질 수 있기 때문이다.

(표 1) 유영철의 살인사건의 피해자 직업 및 성별

시기	직업 및 성별
03년 9월 24일	모대학 명예교수부부
03년 10월 9일	고모씨 일가족 5명
03년 10월 18일	유모씨 (68-여)
03년 11월 18일	김모씨 (87세)등 2명
04년 3월 중순	전화방 도우미 권모씨(24-여)
04년 4월 중순	노점상 연모씨(44세)
04년 6월 17일	출장마사지사 김모씨(26-여)
04년 6월 중순	출장마사지사 장모씨(26-여)
04년 7월 1일	출장마사지사 우모씨(28-여)
04년 7월 9일	출장마사지사 고모씨(24-여)
04년 7월 13일	출장마사지사 염모씨(27-여)
미상	출장마사지사 김모씨(27-여)
미상	출장마사지사 장선씨(나이미상-여)
미상	출장마사지사 신씨(32-여)
미상	출장마사지사 신원미상1명

(4) 사건분석

유영철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알콜중독자 아버지가 첩을 두고 사는 비정상적 가정환경 속에서 성장한다. 가정으로부터의 애정결핍과 수년간의 수감생활로 성격장애를 가지게 되었으며 초등학교 4학년 때 그가 살았던 원효로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윤노파 살인사건과 중학생이 실종되어 살해된 이윤상 유괴사건이 발생했다(이웅혁, 2004: 180). 수감당시 강제이혼당한 이후 전과자, 이혼경력으로 여성을 사귀는데 실패

하자 출장마사지사들을 불러 자신의 성적 쾌락을 충족하고 여성에 대한 증오와 적개심을 살인이라는 형태로 충족한 것으로 보인다. 살인 이후에는 장기를 간직하는 형태로 여성에 대한 지배나 우월성을 과시하고 싶었던 것이다.

가난하고 이혼가정에서 성장하고 이혼을 하고 수감생활을 하였다는 것이 연쇄살인범이 된 직접적 원인이라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이 유영철의 범행과 무관하지 않다는 점에는 이의가 없다. 일반적인 살인과 달리 유영철 연쇄살인이 사회에 주는 메시지와 경각심은 그 범행의 동기가 금전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범행의 대상이 노인이나 여성이었다는 점이다. 금전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본적인 사회적 치유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언제라도 계속된다는 문제점과 사회적 약자가 사회적 약자를 범행대상으로 삼는, 즉 자신의 처지와 비슷한 약점을 가진 사람을 노렸다는 데 범행이 용이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 우리사회에는 여성이 성매매를 계속하고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고 원룸에서 혼자 생활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지속되고 있다. 여성이 살인, 강도, 강간의 범행 대상이 언제라도 될 수 있는 사회적 병리현상이 지속되는 한 유영철의 연쇄살인은 하나의 사례에 불과할 것이고 유사한 범죄는 계속될 것이다. 범죄수사와 체포이후에 노래방 도우미, 성매매여성, 직장여성, 사회적 약자 보호책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논의가 없는 것이 아쉬울 뿐이다.

2) 강호순 연쇄살인사건 분석

(1) 성장배경

강호순은 충남 서천군 시초면 아버지 강모씨(06. 8월 사망)와 어머니 노모씨(65세) 사이에서 3남 2녀 중 셋째로 태어났다. 강호순은 어린시

절 어머니를 때리는 아버지를 보고 성장하였다. 어린시절부터 폭력에 대한 적개심을 가지면서도 자신은 아버지의 폭력적 습관을 답습하고 동물을 잔인하게 도살하며 생명을 경시하게 되었다고 한다.

1995년 덤프트럭으로 골재를 수송하면서 생계를 유지하다 IMF 이후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자 1995년 5월 트럭화재로 보험금 2800만원을 받고 7월에는 트럭 도난사고로 5790만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2000년 1월에는 식당화재로 3800만원, 10월에는 티코차량 전복사고로 7381만원을 수령했다. 2005년 10월에는 아내와 장모가 숨진 화재로 4억8000만원이라는 보험금을 챙겼다. 보험사기를 통해 경제적 이득을 얻게 된 후 터득한 범행수법을 자신의 아내와 장모를 살해하는데 이용한 것이다. 강호순에게는 네번의 결혼을 통해 가정과 아내의 존재마저 경제적 이익을 위해 이용하는 수단에 불과했던 것이다. 극단적인 여성과 인명에 대한 경시를 보여준 것이라 할 것이다.

(2) 강호순의 정신병질 결과 (PCL-R 결과)³⁾

강호순의 정신병질검사결과를 보면 대인관계 면에서는 뛰어난 언변을 가지고 있으나 질문에 대한 대답을 회피하고 방향을 바꾸거나 대화 주제를 벗어나는 경향이 있었다. 자신의 가치를 과장하고, 자신은 문제가 없는 인간으로 보고 있었다고 한다. 타인의 상호작용 면에서는 거짓말과 속임수를 구사하고 이중생활을 했으며 과거행동에 대해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었다.

정서적인 결과는 자신의 행위로 인한 부정적 결과에 대하여 감정적인 반응을 전혀 나타내지 않았으며, 자신의 범행을 피해자나 사회 주변의 환경에 원인이 있다고 보고 있다. 타인의 고통에 대해 무관심하고

3) 강호순의 경우에는 대인관계, 생활방식, 반사회적 특성, 정서적 문제에서 평균 24점보다 높은 28점으로 싸이코패스로 나타났다.

감정적 깊이가 없다는 검사결과를 보였다. 타인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능력이 부족했고 타인을 도구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호순은 범행을 저지르고도 뉘우치지 않고 있으며 자신의 경제적 이득과 쾌락을 위해 여성들을 성폭행하고 살해하는 행동방식을 확인할 수 있는 결과이다.

생활방식에 대한 PCL-R 결과에서는 지루하거나 일상적인 활동을 견디지 못하고 직장을 자주 바꾸거나 지루해지면 대인관계를 단절하고 여행을 떠나는 성향을 나타냈다. 한 가지 활동을 하는데 관심을 지속하는 것에 어려움을 나타냈다. 감정이 없는 성적인 관계를 지속했으며 동시에 여러 개의 성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강호순이 이전에 네명의 여성과 결혼을 하고 동시에 여러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인이 가능했던 것이 이러한 테스트에서도 나타났다. 반사회성테스트에서도 쉽게 분노하고 성질이 급하여 짜증을 잘 내는 것으로 판명되었고 이는 다양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검사결과가 나왔다.

강호순은 강간, 폭처범위반, 특수절도등 전과 9범의 범죄경력력을 가지고 있었으니 이러한 검사결과와도 일치한다고 보여 진다.

이상의 결과를 보면 강호순의 경우에는 여성을 자신의 쾌락을 위한 수단으로 보고 있으며 살해를 하고도 아무런 죄의식을 느끼지 않는 전형적인 싸이코패스⁴⁾형 쾌락형 연쇄살인범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4) 싸이코패스(Psychopath)는 사회병질자라고 불리는 반사회성 성격장애자로 가정과 사회에 큰 물의를 일으키고 이러한 행동이 만성적으로 반복되는 경향이 있다. 지능도 정상이고 사고의 장애도 없으며 외모만 보면 영리하고 위협한 장면에도 불안해하거나 긴장을 느끼지 않는다. 그러나 내면적으로는 신의와 성실성이 없고 거짓말을 잘한다. 싸이코패스의 행동은 예측이 어렵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칠 줄도 모르고 적당한 거짓말을 해서 어려운 고비를 넘기면 그만이라고 생각한다.

반사회적 성격장애자는 자신의 욕심만 충족되면 그것으로 만족한다.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않으며 자신의 욕망이 충족되지 않으면 난폭한 행동을 하기도 한다. 성인의 반사회적 성격장애는 직업적응이 어렵고 일정한 직장에 종사할

문제는 이러한 쾌락형 연쇄살인범이 호감형 외모와 경제력을 갖춘 남성인 경우 상당수의 여성이 피해자가 될 수 있고 되어왔다는 것이다. 이러한 싸이코패스형 인간의 출현은 강호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사회의 의식수준과 사회문제를 극단적으로 보여준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 강호순 연쇄살인범죄의 심각성이라 할 것이다. 이전의 연쇄살인범들과 달리 죄의식 없이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하는 쾌락형 살인범이 우리주위에 얼마든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PCR-L 검사가 강호순 연쇄살인사건을 분석하는 데 어느 정도의 근거를 제공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연쇄살인의 경우뿐만 아니라 살인, 강도, 강간등 유사범 죄자에 대한 PCR-L 검사가 필요하고 그 데이터가 경찰수사에 활용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사건처리에 이러한 과학적 데이터가 얼마나 실시되고 활용되어지고 있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범죄학자들에게 범죄유형별 범인의 심리테스트 결과가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면 범죄원인분석과 대책마련이 더욱 과학적 분석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사건개요

강호순의 8건의 여성연쇄살인은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의 자료(2009)에 따르면 06년 9월 정선군수 여비서 윤모씨(23세)를 강원 정선군 애산리에서 출근하는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 목졸라 살해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2006년 12월 13일에는 군포시 노래방에서 배모씨(45세)를 만나 차안에서 성관계를 가지고 스타킹으로 배모씨를 목졸라 살해한다. 그뒤 12월 24일에는 노래방도우미 박모씨(46세)를 만나 비봉 IC 근처

수없으며 상사 및 동료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다. 이혼과 별거를 자주하고 충동적으로 결혼하고 성생활이 문란하다. 지능이 낮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학업성적이 나쁜 것이 특징이다(이현수, 1990: 103-104).

에서 차안에서 박모씨를 역시 목졸라 살해한다. 불과 10여일 만에 세 번째 살인을 저지른 것이다. 이후에도 07년 1월 화성버스정류장에서 회사원 박모씨(50세)를 동승시켜 성폭행하고 스타킹으로 목을 조르는 방법으로 살해한다. 20대부터 50대 여성들을 성폭행하고 목졸라 살해하는 쾌락형 연쇄살인범의 치밀한 범죄양상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어떻게 여성들이 순순히 강호순의 요구에 응하여 차량에 동승하게 되었는지, 이는 호감형의 외모와 차분한 말투 고급승용차와 말끔한 복장이 여성의 경계심을 풀고 호감을 가지게 할 수 있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이후 07년 1월 노래방도우미 김모씨(39세), 1월 대학생 연모씨(20세), 08년 11월 회사원 김모씨(48세), 08년 12월 안모씨(21세)를 차례로 성폭행하고 목졸라 살해한다. 유영철이나 이전의 연쇄살인범죄가 비체계적이고 사회에 대한 보복형 범죄라면 강호순의 연쇄살인은 치밀하게 계획적 체계적 연쇄살인⁵⁾의 형태라 할 것이다.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하는 일련의 과정을 게임을 즐기는 심정으로 즐겼다는 것을 범행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강호순의 범죄가 반인륜적, 비도덕적, 비양심적이고 여성과 생명을 자신의 성적 유희를 위해 잔인하게 이용하였다는 점이 평범한 여성들에게 위협이 되지 않을 수 없다. 범죄가 사회현상의 반영이라는 점에서 강호순의 연쇄살인은 우리사회의 여성의 현주소를 그대로 보여준 것이고 연쇄살

5) FBI에서는 연쇄살인범을 분류할 때 체계적, 비체계적 이분법을 사용한다. 체계적 연쇄살인범은 범행을 미리계획하고 범행에 사용된 차량을 깨끗이 관리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들은 출구를 찾아 나오는 침착성도 발휘한다. 일시적인 스트레스에도 범행을 저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성행위에서도 변태적이거나 파괴적 행위를 보이고 성적인 흥미를 증대시키려고 상대방을 살려두는 경우도 많다. 반면 비체계적 살인범은 현장까지 걸어오거나 차가 있다면 지지분한 경우가 많다. 또한 많은 경우 정신병에 의한 살인을 저지른다고 한다. 성행위에 있어서도 비체계적 살인범은 성행위를 하지 않거나 성행위를 하고 희생자를 즉각적으로 살해한다(임준태, 2009: 410-429).

인범 한 명을 검거하는 것으로 사건을 종결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러한 결과에 대한 사회전체의 각성과 여성에 대한 일자리마련, 보호장치가 시급하다 할 것이다.

(표 2) 강호순 여성연쇄살인의 직업 및 성별

시기	직업 및 성별
06년 9월 07일	정선군수 여비서 유모씨 (23세)
06년 12월 13일	노래방 도우미 배모씨 (45세)
06년 12월 24일	노래방 도우미 박모씨 (46세)
07년 01월 03일	회사원 박계영 (50세)
07년 01월 06일	노래방 도우미 김모씨(39세)
07년 01월 07일	여대생 연모씨(20세)
08년 11월 09일	회사원 김모씨(48세)
08년 12월 19일	여대생 안모씨(21세)

(4) 사건분석

대부분의 연쇄살인은 분노와 사회적 불만을 표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강호순의 경우에는 개인적 욕구와 쾌락을 위한 연쇄살인으로 이전의 연쇄살인범과는 달리 분류된다. 전문가들은 강호순 살인 이후 쾌락적 연쇄살인이 증가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강호순의 경우 사회적 분노도 없었으며 힘든 어린시절도 없었다. 그러나 강호순은 여성들을 쾌락을 위해 혹은 경제적 이유로 성폭행이후 살인하였다. 논리적이고 후회도 없었다. 전형적인 사이코 패스의 모습이고 쾌락적 연쇄살인의 전형이었다. 강호순은 수사진행상황에 대하여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으며, 프로파일러라는 일반인에게 생소한 전문용어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고 한다. 연쇄살인 이전에 여러 매체를 통하여 연쇄살인에

대한 연구를 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고 한다.

수사단계에서도 수사관들이 범행동기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사람을 죽이는데 무슨 이유가 있느냐”, “나와 통화하거나 안면이 있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는 등 비상식적 발언을 하였으며, 살인을 한 후 12시간 이상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는 치밀함도 보였다. 범행 은폐를 위해서는 피해자들을 살해한 장소에서 이동하여 시체를 은닉하였으며, 범행대상을 추운 날 버스를 기다리는 여성이나 노래방 도우미들을 주로 선택하였다. 강호순의 경우에는 우발적 분노형 연쇄살인이 아니라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되고 살인의 과정을 게임처럼 즐기는 전형적인 사이코패스의 모습을 볼 수 있다. 경찰청 사건분석(2009)에 따르면 강호순은 어떤 연쇄살인범보다 자존심이 강하고 타인에 대한 통제나 지배욕이 강했다고 한다. 수사과정에서도 자신이 주도권을 가지려고 노력을 했고 상대방이 자신의 통제를 따르지 않을 때는 난폭한 행동도 서슴치 않았다고 한다. 여성에 대하여도 자신이 주도권을 가지고 자신의 명령에 복종하기를 원하며 여성을 지배의 대상으로 생각했다고 한다. “여성 열두 명과 결혼하는 것이 목표”라며 자기중심적이고 여성착취적인 이성관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강호순은 직업을 자주 바꾸고 이혼하고 별거하는 일이 많았고 검거할 당시에도 5명의 애인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강호순 연쇄살인사건은 여성들에게 새로운 위기의식과 두려움을 안겨주었다는데 그 특징이 있다. 호감형 외모에 고급차에 명품옷을 걸친 남성이 연쇄살인범일 것이라는 예상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주위의 이러한 유사범죄가 계속될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여성에 대한 남성들의 지배성과 성착취 의식이 단적으로 표현된 사건이라 할 것이다. 여성을 동등한 인격체로 파악하기보다 성적인 쾌락의 대상으로 보고 통제와 지배의 대상으로 파악하는 남성들의 기본적 시각이 강호순의 경우에는 극단적 범죄로 표출된

것이라 할 것이다. 가정에서 혹은 직장에서 여성은 우리사회에서 성적 유희의 대상이거나 지배욕을 표출하는 대상으로 여겨지고 있다는 것을 강호순 범행에서 일면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여성인권유린적 범죄행위가 지금도 유사한 형태로 우리의 일상과 관습, 제도에서 계속 되어지다 결국 범죄에 이용된다는 것이 강호순 연쇄살인사건의 사회적 의미가 아닌가 한다. 또한 한국사회의 여성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사건으로 여성들이 인식해야 할 것이며 스스로의 인권보호와 방어가 되어지지 않는 이상 어떠한 법이나 제도로도 이러한 억압과 범죄를 막아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4. 여성연쇄살인에 대한 사회적 대응책

이상에서 본 여성연쇄살인범죄는 그 연쇄살인범의 발생과정, 범행동기, 범행수법 등이 일반적인 범죄와는 달리 치밀하게 계획된 보복형 범죄이고 원인 면에서 본다면 사회적, 제도적 병리현상이라 할 수 있다. 86년 화성연쇄살인사건과 94년 9월 지존파사건, 94년 9월 온보형사건, 2004년 유영철의 부녀자 연쇄살인, 2009년 강호순의 부녀자 연쇄살인은 모두 어린시절의 학대의 경험과 가난, 사회적 소외와 격리에서 비롯된 범죄이다. 연쇄살인범의 경우에는 사회적 약자라는 자신의 열등감을 여성, 노약자등 다른 사회적 약자를 공격하고 살해함으로써 해소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 사회의 제도권에서 삶을 영위할 수 없었던 소외계층에서 이혼, 빈곤, 폭력, 증오라는 극단의 경험을 하고 연쇄살인범으로 변화해 간 것이다. 강호순은 희대의 살인마라고 하기에는 너무도 평범한 외모와 생활방식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 주변사람들이 오랜 기간 동안 깨닫지 못할 만큼의 일상을 영위하는 우리이웃의 모습이었

다. 언제 어느 곳에서 이러한 살인과 폭력이 계속될지, 그 잔인함과 강도가 높아져 갈 것인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다. 경제발전이라는 명분 하에 늘어만 가는 노숙자, 실직자, 가정파탄, 이혼 이러한 사회의 병리가 연쇄살인범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그 피해의 대상이 바로 여성, 노약자, 어린이들인 것이다.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1) 여성 범죄전문가의 양성

여성관련 범죄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여성범죄학자나 여성법조인, 여경이 한국에는 상당히 드물다. 전국의 여성범죄학자는 극히 소수이고 여성법조인의 수도 남성에 비해 턱없이 적다. 여자경찰관은 전체 경찰관의 4.6%정도이다. 이중 수사나 형사에 근무하는 여경은 18%에 불과하고 이러한 부서에 근무하는 여경마저도 대부분은 형사지원팀이나 지능팀에 근무하고 있어 연쇄살인이나 여성강력범죄를 담당하는 강력계나 형사계에서는 근무하는 여경은 거의 없다. 여성강력범죄 전문가는 우리나라에 몇 명 안된다고 할 것이다. 여성이 야간에 범인검거를 위해 남자경찰관과 근무하기 어려운 면도 있고 강력계나 형사계에서 여경이 근무하는 것을 거부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능력 있고 의욕이 있는 여경들이 강력계나 형사계, 광역수사대 등에서 여성강력범죄 전담경찰관으로 근무해야 여성강력범죄에 대한 분석과 검거과정에서 여성피해자 인권보호, 여성범죄자의 조력 등이 제대로 이루어질 것이고 형사법절차

(표 3) 부서별 여경분포 현황

구분	경무	생활안전	교통	형사수사	경비	정보	보안	외사	지구대	기타
여경	277	756	544	1,041	197	140	125	111	2,323	43
비율	4.8	13.1	40.1	18.0	3.4	2.4	2.2	1.9	40	0.7

자료 : 경찰청 인사교육과, 2008. 6

상의 제2의 여성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여성강력범죄 수사도 한층 심도 있게 여성의 입장에서 수사가 가능할 것이다.

2) 정부의 여성정책의 현실화

여성관련 강력범죄라 할 수 있는 성폭력, 강간, 살인 등의 범죄에서 여성피해자들은 유흥업소 종사자, 출장마사지사, 노래방 도우미, 독신여성 등 범죄 발생과 관련되어 있는 업종에 종사하거나 늦은 시간 귀가 하거나 퇴근을 하고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범죄학적으로 보는 일반적인 견해는 여성들이 범죄를 유발하였고 이러한 업종에 종사해서는 범죄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른다. 그러나 현재의 경제상황은 여성들이 밤늦은 시간까지 야근을 해야 하고 원룸 등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늘어만 가는 현실을 외면하기는 어렵다. 별다른 경제적 능력을 갖추지 못한 여성들은 유흥업소나, 마사지사, 노래방 등에서 일하는 것 외에 다른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직업을 가질 능력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생업을 가질 수밖에 없는 여성 일자리 마련을 위한 정부의 현실적인 대책이 여성이 강력범죄 피해자가 되는 것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대책일 것이다.

3) 여성 관련 범죄 예방·방지 대책

경찰청, 검찰청의 여성피해자 분석이나 여성피해자 보호대책이 마련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성범죄분석이나 여성피해자, 여성범죄자에 대한 별도의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 여성범죄에 대해서는 경찰청의 경우 여성청소년과에서 성폭력, 성매매에 관한 통계정도를 관리하고 있고, 형사과나 수사과 차원의 전담인력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일반

강력범죄에 포함시켜 수사단계에서 남녀 피해자, 혹은 범죄자가 동일한 과정으로 조사를 받고 동일한 형사절차를 거치고 있다. 그러나 경찰서 조사를 기피하고 신고를 두려워하는 여성의 특성상 신고접수, 조사 단계부터 여성전담수사관이 필요하고 범인 검거 시에도 여성경찰관이 참여하여 여성범죄분석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이를 근거로 여성관련 범죄 분석과 방지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아가야 연쇄살인범에 대한 근본적인 예방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경찰과 검찰에서도 여성부나 여성단체와의 협조를 통해 여성 관련범죄에 대한 분석과 현실적인 대책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4) 사회적 약자 보호 정책

대부분의 범죄가 그러하지만 한국의 연쇄살인범의 경우에는 사회적 약자가 부자에 대한 보복을 위해서, 여성에 대한 증오심을 풀기위해, 성적인 쾌락을 위해 살인을 저지른 경우가 대부분이다. 경제적 이유보다는 사회의 병리현상에 대한 보상심리를 여성, 노약자를 대상으로 해소했다고 볼 수 있다. 사회는 갈수록 양극화되어가고 노숙자, 실직자, 이혼, 아동학대가 늘어가는 사회현상이 연쇄살인범과 같은 사회 병리적 강력범죄를 발생시켰다. 더욱 비극적인 것은 그 피해자의 대다수가 여성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연쇄살인범은 사법기관의 범죄수사기법 개선이나 경찰의 노력만으로는 그 방지대책이 될 수 없다. 사회의 제도권에서 소외된 빈민, 장애인, 노약자, 여성 등에 대한 정부차원의 현실적 대책이 없이는 그 악순환이 계속될 것이고 그 결과 연쇄살인과 같은 극단의 범죄는 늘어갈 것이다. 유영철, 강호순과 같이 사창가 주변에서 거주하며 어린 시절을 보내야 하는 사람들에게 대한 대책마련, 성매매업소 여성들의 일자리마련과 같은 현실적 대안을 포함하는 사회적

약자 보호대책은 범죄예방대책차원에서도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5. 결론

여성연쇄살인범의 경우에는 사회적 약자가 부자에 대한 보복, 여성에 대한 증오심을 해소, 성적인 쾌락을 위해 살인을 저지른 경우이다. 경제적 이유보다는 사회의 약자로서 자신의 소외감에 대한 보상심리를 여성, 노약자를 대상으로 해소했다고 볼 수 있다. 이렇듯 여성연쇄살인 범죄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범죄분석과 범죄대책, 수감대책으로는 계속되는 여성연쇄살인을 막을 수 없고 여성범죄피해자의 인권보호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연쇄살인범죄의 범행동기, 수법 등을 통해 알 수 있다. 따라서 여성범죄학자, 여성법집행기구종사자, 여성학자, 여성정치가들의 협력적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언제든지 성범죄, 연쇄살인, 성매매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현재의 여성의 사회경제적 상황은 한명의 연쇄살인범의 체포나 사형의 연도로 해결될 수 없는 것이다. 여성이 사회에서 자신의 역할을 다하고 능력을 신장시켜 경제적 사회적 위치를 확보하고 남성들의 쾌락의 대상으로 밖에 여겨질 수 없는 현실을 개선해 나아가야 강호순 부녀자 연쇄살인사건과 같은 범죄가 계속되어지는 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여성연쇄살인 범죄는 사법기관의 범죄수사기법 개선이나 경찰의 노력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것이다. 사회의 제도권에서 소외된 빈민, 장애인, 노약자, 여성 등에 대한 이해와 정부차원의 현실적 대책이 없이는 그 악순환이 계속될 것이고 그 결과 연쇄살인과 같은 극단의 범죄는 늘어갈 것이다. 유영철, 강호순과 같이 사창가 주변에서 거주하며 어린시

절을 보내야 하는 청소년들에 대한 대책, 성매매업소 여성들의 일자리 마련과 같은 근본적인 사회적 약자 보호대책은 범죄예방차원에서도 지속적이고 현실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강호순, 유영철 연쇄살인 범죄는 한 연쇄살인범의 범죄성향 파악이나 검거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여성의 비극적 상황을 사회에 각성시킨 것이었으며 소외계층이 소외계층을 살인의 대상으로 소외감을 해소할 수밖에 없는 극단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다. 그 대책 역시 경찰, 검찰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성계, 학계, 사회적, 정부적 차원의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원고접수: 2009. 5. 20 게재확정: 2009. 6. 9)

참고문헌

- 동아일보(2004), 1면.
경찰청(2004), 『수사백서』.
윤옥경외(2009), 『여성범죄론』, 박학사.
오윤성(2004), “연쇄살인범에 대한 효율적 수사방안의 고찰”, 『사회과학연구』10: 531-550.
이영란(1994), 『여성과 범죄』, 나남신서.
이용혁(2005), “연쇄살인범에 대한 범죄심리학적 분석”, 『경찰학연구』, 8: 136-161.
이현수(1990), 『이상행동의 심리학』, 대왕사.
임준태(2009), 『프로파일링』, 대영문화사.
최영인, 임건령(2005), 『범죄프로파일이론과 연쇄살인의 프로파일링』, 백산출판사.
표창원(2005), 『한국의 연쇄살인』, 랜덤하우스 중앙.

한국일보(2004), 17면

Fox, J. & J. Levin (1994), *Overkill: Mass Murder and Serial Killing Exposed*, NY: Plenum Press.

Marcus. G (1986), "Contemporary Problems of Ethnography in the Modern World System".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Holmes, R. M., & J. Deburger (1998), *Serial Murder*. Newbury Park, CA: Sage.

Quinsey, V., T. Chaplin & D. Upfold (1990), "Murder and Sexual Arousal to Killing: Correlation Unsupported", *Journal of Behavioral Therapy and Experimental Psychiatry*, 20.

Rider, A. (1980), "The Criminal Offenders; A Psychological Profile", *FBI Law Enforcement Bullentin*, 49.

Michaud, S., & H. Aynesworth (1983), *The Only Living Witness*, NY : Signet.

<Abstract>

Feminist Analysis on the Female Serial Murders in Korea

- The Cases of Yoo Young-chul and Kang Ho-soon

Sun-Young Park

The victims of Hwasung serial murder in 1986, Gijonpa serial murder in 1994, Enbohyung case in 2004 and Yooyoungchul serial murder in 2004 are women, children and old people. In 2009, Korea Society realized that we need concern on the female serial murder because of Kanghosoon case. The reasons of Female serial murder are the revenge of the rich, the hatred of women, sexual pleasures. We can say that the cause of serial murder is not because of the solution of the money problem but because of the break of social isolation. The female serial murder can not be protected by the common crime analysis. It requires radical policy for the youth who spend their childhood near a red-light district and jobs for female prostitutes. Korea government should prepare the durable social protection for the weakness as the crime prevention policies. Discussion on the serial murder is necessary not only police and prosecutor but also women association, academic circles, NGO and government.